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802.1	16.3	138,500	5.3	2.2	-1.4	7.8	96.5	46.3	0.7	0.7	0.7	1.4
현대중공업주	5,716.6	20.7	351,000	2.9	-12.4	-15.0	1.4	4.7	3.9	0.6	0.5	14.1	14.7
현대알렉트릭	451.9	4.8	22,200	-1.1	-17.0	-38.7	0.0	2.1	1.8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896.4	7.8	45,500	2.7	-2.8	-33.1	6.6	2.9	21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4,882.5	17.3	7,750	3.3	4.6	-4.3	4.6	48.9	242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570.0	11.0	33,300	-0.6	-0.7	-9.8	-2.5	9.8	136	1.0	1.0	11.4	6.1
현대미포조선	2,520.3	11.1	63,100	3.4	8.6	20.8	5.2	13.6	9.8	0.5	0.5	3.6	4.8
한진중공업	158.5	5.9	1,495	-0.7	-16.9	-39.5	-9.7	30.1	7.5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001.0	20.7	110,500	2.8	4.7	-10.5	3.3	195	190	27	24	14.6	13.3
두산밥캣	3,077.6	27.6	30,700	0.7	-5.5	-23.3	-2.5	11.2	10.6	0.9	0.8	7.4	7.6
현대로템	2,388.5	3.4	28,100	-1.2	-6.8	-11.1	0.9	362	24.7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233.5	47.0	17,150	5.9	-6.3	-27.6	4.3	7.8	7.1	0.7	0.6	8.8	9.0
성광밴드	321.8	15.2	11,250	-0.9	-8.2	-13.1	-1.3	994.5	403	0.7	0.7	0.1	1.8
태광	302.1	11.9	11,400	-3.0	-14.9	-23.0	-2.6	68.1	33.2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131.6	13.3	9,660	0.9	-15.3	-33.4	-0.7	-39.9	9.0	0.4	0.3	0.2	4.2
두산인프라코어	1,557.0	20.2	7,480	1.9	-8.4	-25.6	-1.4	52	4.8	0.8	0.7	17.1	15.8
HSD엔진	174.6	5.1	5,300	1.7	-2.9	16.2	0.4	-13.9	-12.7	0.7	0.8	4.7	6.0
한국항공우주산업	3,284.9	13.3	33,700	1.4	5.3	1.0	5.6	42.9	23.8	3.0	2.6	6.8	1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824.0	14.9	35,050	3.2	8.9	21.1	7.8	101.5	25.3	0.8	0.8	0.9	3.3
LIG넥스원	896.5	10.3	40,750	2.1	19.9	7.1	103	86.6	21.1	1.8	1.7	2.5	22.9
태웅	194.1	4.6	9,700	-1.9	-2.7	-28.9	-7.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06.1	4.9	7,600	-0.8	-2.1	-10.0	-1.6	-19.1	303	2.8	2.7	-13.5	9.2
한국카본	302.9	14.5	6,890	0.7	-3.0	-3.8	-2.1	64.9	20.9	1.0	1.0	1.5	4.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China to be LNG's 'most important market'**

미국 Stifel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세계 LNG 수요량은 3배로 증가하며, 중국이 가장 큰 소비국이 될 전망임. 현재 전세계 LNG 수요는 3억mtpa로, 중국의 비중은 17% 수준으로 알려짐. 향후 2030년까지 LNG 수요는 7.9억mtpa로 성장이 예상되며, 중국 비중은 27%로 상승할 전망임. (TradeWinds)

Tanker spike keeps S&P at near record levels

Clarksons에 따르면 2018년은 탱커 중고선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탱커 용량 기준으로 2018년 중고선 거래는 3,260만DWT로, 전년동기 2,780만DWT 대비 약 17% 상승함. 동시에 2018년 탱커 운임 지수는 1990년 대 초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현대미포, 글로벌 조선 빅5 자리 탈환 예고

현대미포조선은 사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수주잔량 기준 글로벌 탑 5에 자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알려짐. 18년 1~11월까지 미포조선은 수주잔량 기준 165.7만CGT로 8위에 위치함. 1~4위를 국내 조선사가 차지하고 있고, 5위 중국 Jinangs New YZJ과 차이가 작다는 점에서 5위권 진입이 예상됨. (EBN)

Norway investments on the rise

노르웨이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투자는 2019년 1,845억크로네(215억달러)로, 전년대비 16% 증가할 전망임. 2020년까지 투자는 1,825억크로네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며, 2023년부터 1,415억크로네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임. 투자증가는 수익성 강화와 일부 프로젝트에서 개발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Upstream)

현대중공업 노조 "최종 문구 수정 합의"...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에 달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잠정합의안 재논의 과정에서 최종 문구 수정에 합의했다고 밝힘. 해당 잠정합의안은 작년 말에 마련되었고, 노조 내부의 문구 삭제 요청에 따라 최종 문구를 수정함. 문구 수정에 합의된 만큼 현대중공업 임단협도 마무리될 전망임. (파이낸셜뉴스)

현대중공업 '평형수처리장치' 국내 최초 노르웨이·독일선급 형식승인 획득

현대중공업은 자사 선박 평형수처리장치 HiBallast가 노르웨이·독일선급(DNV GL)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힘. 이번 형식승인은 기준보다 기준이 강화된 IMO의 개정된 지침을 적용했고, IMO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형식승인은 국내 최초로 알려짐. 세계적으로도 현대중공업 포함 네 곳에 불과함. (서울경제)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1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1월 8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